

# 사드 후폭풍...유커 사라진 광주

### 중국인 관광객 없어 정울성 생가→쇼핑 코스 유명무실 롯데백화점 지난해 월 평균 400명 찾다 올해 방문 全無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60% 이상 줄면서 그나마 광주를 방문했던 중국 관광객도 사라져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의 정울성 생가를 둘러보고 광주지역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던 '관광 코스'도 깨져버렸다.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백화점 방문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백화점은 매달 한 달에 400명에 달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맞았고, 이들은 1층 명품관 등을 돌며 쇼핑

을 했었다. 이에 이 백화점은 이들을 겨냥해 중국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올 해는 단 한 차례도 중국인이 찾지 않아 이 같은 노력도 소용없어졌다.

지난해 히딩크 호텔의 폐업도 중국인 관광객 급감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울성 생가 터로 중국인 관광객이 몰렸던 이 호텔은 한 때, 한 달 평균 3000여 명의 중국인이 찾기도 했다. 65개 객실은 거의 모두 중국인으로 채웠던 날도 많았다.

이 덕분에 밤이면 광주시 동구 구도심 일대를 돌아다니는 중국 관광객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었고, 일부 삼겹살집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또 한류 열풍을 타고

연예인의 사진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동구에서 성업했지만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최근 문을 닫았다.

문제는 사드 역풍과 히딩크 호텔의 폐업으로 그나마 싹 트기 시작했던 '중국 관광객 루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들 중국인들은 대부분 제주도를 방문한 뒤 배를 타고 완도나 강진을 통해 광주를 찾았다. 바다를 좋아하는 중국인을 위해 배를 타는 여행 상품이 나왔고, 중국인의 존경을 받는 정울성 유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셈이다.

또 인근의 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쇼핑 코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광주-전남의 바다 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여행 상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나마 있는 지역 쇼핑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자국 여행사에 대한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조치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6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감소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39.4% 감소했지만 4월만 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64.5%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3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지난 1~2월에는 작년보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8% 이상 늘었음에도 올해 1분기 전제로 보면 9.1% 줄었다. 이런 중국 관광객 급감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하면 올해 전체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의 807만 명의 절반 수준인 4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광복기자 kroh@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2145.76 (+10.88)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0)    |
| ↑ 코스닥 629.47 (+11.23)  | ↓ 환율 (USD) 1137.70원 (-2.30) |

## 고용 불안 20대 지난해 고용률 광주 50.2%·전남 52.2%...매년 하락

광주·전남지역에서 20대 고용률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4~2016년 광주·전남 고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대 고용률이 2014년 53.9%에서 2015년 51.6%, 2016년 50.2%로 매년 떨어졌다.

전남의 경우도 20대 고용률이 2014년 55.6%에서 2015년 53.8%, 2016년 52.2%로 매년 하락했다.

이는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고용률은 광주는 2014년 35.4%, 2015년 35.8%, 2016년 37.1%로 매년 상승했다. 전남은 2014년 51.3%에서 2015년 51.0%로 하락했다가 2016년 52.0%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고용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광주 79.2%, 전남 8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는 30대 74.0%, 50대 72.7%, 20대 50.2% 순이고, 전남은 50대 79.3%, 30대 73.1%, 20대 52.2% 순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광주는 2014년(8월 기준) 39.7%에서 2015년 35.5%, 2016년 33.7%로 매년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2014년 39.0%, 2015년 39.3%, 2016년 39.6%로 매년 상승했다.



## 상공인들 “상속세 완화해 달라” 소상공인-광주국세청장 세정간담회



17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소상공인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 애로에 대한 건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광주상의 제공>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 애로에 대한 건의가 불물을 이뤘다.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과 성실 납세협력·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상공인들의 세정 애로 건

의와 김희철 청장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경영생계에 부담이 되는 고율의 상속세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경영 노하우 승계를 통한 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세

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가업상속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창출과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가업상속 공제액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을 증액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권 (주)위니아글로벌테크 대표이사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허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신설’을, 임민자 (주)성일이노텍 대표이사는 ‘중국의 사드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수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산은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불허 입장 불변”

산은 “금호 “검토후 입장 정하겠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산은은 “지난달 보냈던 주주협의회 결과 안내 공문과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은은 이번 공문은 금호아시아그룹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다. 금호그룹은 지난 12일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산은은행에 요구했다.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 문제, 금호타이어의 재무조정,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에 보낸 약속서 등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매매조건을 완전히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이 이 세 가지 내용을 채권단한테서 듣지 못했으니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채권단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이 금호그룹의 논리다.

이처럼 산은이 이날 기존 입장을 재차

발함에 따라 공은 다시 박 회장 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산은은 그 시한을 19일로 못 박은 상태다. 박 회장이 19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박 회장 측은 그동안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온 만큼 일단 포기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제2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산은에 재차 공문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산은의 회신이 없으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블스타와 채권단 간 매각절차가 6개월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이 부활하는 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박 회장 간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서에 이런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다.

금호그룹이 법적 소송이나 여론전 등의 수단을 동원해 매각절차를 지연시키고서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의 내용을 검토하고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 노화 가속 어촌 수산업 종사자 10명중 6명 50~60대

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수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수산업 전체 종사자 수가 총 104만4000명으로 산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어업, 수산물 가공업 등에만 한정돼 실시되던 통계 조사 범위를 확대해 수산물 기자재 산업,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 실태까지 포함해 실시됐다. 총 8개 수산 분야 6117개 사업체와 2135명의 어업인을 표본으로 2015년 말 기준 종사자 수, 매출 등을 산출했다.

업종별로 보면 수산물 생산업 종사자가 64만5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2%에 달했다. 이어 수산 관련 서비스업(12.2%), 수산물 유통업(12.1%) 등이었다.

전체 사업체 수는 12만 5000개로, 수산업 사업체(8만9000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관산업 사업체 수는 3만7000개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가 34.2%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28.3%), 40대(22%)가 뒤를 이었다.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2.5%가 50~60대인 셈이다.

2015년 기준 수산업 총 매출액은 65조 9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가 전체 매출액의 1.2%를 차지했다. 수산업 관련 사업체의 자산 총액은 215조8000억원으로 규모가 큰 편이었으나, 이 중 부채가 자산 대비 60%가 넘는 131조9000억원이 있었다. 사업체별 연평균 영업 이익은 5618만원, 전체 영업 이익은 7조3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단풍이엔쇼핑몰

가정의 달 기념 5월 한달 내내 펼쳐지는

# 오!오! 릴레이 페스티벌

오월 한달 내내 정음 내장산 외가방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1일 연초저녁  
**첫번째 릴레이 응원합니다.**

4. 26일까지 예약, 4. 27(목) 발송

5월 5일 어린이날  
**두번째 릴레이 행복합니다.**

4. 26일까지 예약, 4. 27(목) 발송

5월 8일 어머니날  
**세번째 릴레이 감사합니다.**

4. 26일까지 예약, 4. 27(목) 발송

5월 15일 스승의날  
**네번째 릴레이 존경합니다.**

5. 10일까지 예약, 5. 11(목) 발송

5월 21일 부부의날  
**마지막 릴레이 사랑합니다.**

5. 17일까지 예약, 5. 18(목) 발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이엔쇼핑몰을 검색하세요!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모든채움 100%로

**잡곡 set**

현미 1kg, 찰현미 1kg  
찰보리 1kg, 유기농 찰쌀 1kg  
홍사랑미 1kg

-20,500> **18,000원**

**기능성잡곡 set**

유기농귀리 1kg  
오색미 1kg  
녹미 1kg + 흑미 1kg

-26,300> **22,000원**

**장아찌 set**

올외장아찌 1kg  
복분자 청외장아찌 1kg

-25,000> **20,000원**

**삼겹살 set**

삼겹살 1.2kg  
유기농 쌈채 300g

-35,000> **32,000원**

**어린이간식 set**

꿀떡200g\*2 (홍미/원가레믹 800g)  
플레이요구르트 150ml\*4개  
참조청 50g\*2개 중정

**21,500원**

**꿀마미 set**

매죽나무꿀 600g  
등근마 1kg  
미숫가루 800g

-36,500> **29,500원**

**건강즙 set**

사과즙 10포, 배도라지즙 10포  
블랙베리즙 10포

-30,000> **19,500원**

**부부의날 천생연분 set**

두툼떡밀 찰떡 32개  
비누꽃 1송이  
우체국 감사카드

-31,000> **27,000원**

**건강분말 set**

동결건조 블랙베리분말 50g 1통  
아로니아분말 50g 1통

-40,000> **19,000원**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음시청), 회원가입 후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